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05. 09.(금) 09:00 < 05.09.(금) 석간 > 배포 2025. 05. 08.(목)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 사우디와 첨단 신산업 비즈니스 협력 확대

- 산업부 후원으로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 개최, 첨단 신산업 관련 양국 기업 120여개사, 기업인 250여명 참석
- 디지털, 전기차, 방산 등 사우디 신산업 대표기업 방한 및 참석
- IT·첨단제조, 청정에너지, 특구개발 프로젝트, 의료·문화산업 협력 논의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 기존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석유, 화력발전 등)를 넘어 디지털·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대단위 특구 개발, 헬스케어·문화산업 등 첨단 신산업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동 국가 중 GDP규모 1위 및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 1위, 국내 원유도입량 1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후원으로 5월 9일(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16년 수립) 관련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으로서, IT·첨단제조(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청정에너지(재생e, 수소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의료·엔터테인먼트(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서 STC(사우디 최대 통신사), SAMI(사우디 국영 방산기업), Ceer(사우디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약 20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약 100개사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루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담당자	사 무 관	김종현 (044-203-57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